

건축사 여러분께

Dear Korean Registered Architects

밤이 이슬해졌습니다. 옥상카페 준비한 흥대 앞 어느 주점 지붕마당에서 문화판 인사들과 어찌어찌 하다보니 건축이 화제가 되어 논법을 무시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던 참입니다. 이미 차려진 술도 두세 차례 바닥을 드러냈지만 전혀 취기란 찾아볼 수 없는 심상찮은 기류 속에서 논쟁 아닌 언쟁으로 시간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한 분의 문사(文士)와 저와의 지루한 공방은 '건축'에 대한 각자의 깊은 애정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지만 서로 간 사랑기술에의 차이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설전으로 이어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멀리 새벽의 전조가 느껴질 때 쯤 우리를 무리는 흩어지는 분위기였고, 갈 길 먼 제가 먼저 자리를 떴지만 그 뒤로도 한 차례 술자리가 질기게 이어졌다고 하니 냉랭했던 전작(前齣)의 자리를 풀기 위한 동료들의 수고가 눈에 선합니다.

그 분과 저는 건축계의 병리적 현상에 대하여 공격과 방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사이를 벌려놓고, 대화법에 있어서 기본 룰에 밝다고 자처하는, 그래서 너무 일반론적인 그와, 정돈된 논법의 해체를 고집하면서까지 건축의 특수한 정황론을 대화 속에 개입시키고자 했던 저와는 분명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서로가 씩씩될 수밖에 없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요는 건축계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그래서 건축에 대한 믿음의 구조가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그 분의 입론이 발화가 된 것으로 건축바깥세상과 구분된, 도저히 외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더하여 비판적 자정능력이 결여된, 건축계의 단면을 호되게 질타하는 것이 그 분 논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분의 지나온 이력 가운데 유력 주간지 문화부 기자 시절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현역 기자 시절 그 매체의 건축 기사가 그 분으로 인해 매주 끊어지지 않았을 정도였으니, 알게 모르게 건축동네에 대한 네트워크가 비교적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 인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때나마, 아니 지금껏 그 분의 건축네트워크의 한 가운데 입지해있는 저로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언쟁은 제살 깎아먹는 식이 되는 것이기에 이로울 게 없는 것이어도 이 날은 스스로도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의 건축네트워크에 대한 의심을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나를 포함해' 서 말합니다. 그 때의 일그러지는 그 분의 표정이라니. 제가 그 얼굴에서 경련을 읽지 못했을 리 만무했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건축계 전반의 병리적 현상을 들먹이기엔 가지고 있는 님의 기본 데이터가 너무나 취약하다고 말이지요. 그 분은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느냐는 거

였지요. 도저히 그 말의 진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단히 믿었던 취재원한테서 나온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그 분은 서너 해 전에 건축주가 되었습니다. 현역기자시절부터 가깝게 알아온 친구이자, 문화판 인생에 있어서 동료로 만나온 40대 초입의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서울의 한 복판에 새 집을 지은 유경험자임을 제가 알고 있는 터에, 그 분의 입론이 나름 분명한 사실정황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건축설계와 감리, 그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의 집이 설계미숙과 공사의 부실로 이미 두 해 이상을 생고생해오고 있기에 말입니다. 설계자의 컨셉도 중요하고 집이 제대로 지어지려면 도면도 무척 충실해야한다는 것도 직접 살면서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더욱더 새 집에 고칠 부분이 발생하면 그것이 제대로 고쳐지기까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동네 공사업자들과의 솔한 마찰을 통해서 건축의 내면적 구조에 무척이나 당혹해했음은 물론 시스템은 고사하고, 기술자의 양심마저 실종된 건축현실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우리들 주변의 일반적 건축주의 한 유형이라고 규정지어도 좋을 분입니다.

건축동네에선 어떻게 매 사안에 대하여 비판적 부류가 존재하지 않느냐는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자기비판이 걸여된 집단적 방어와 실어증으로 인해 헤이리아트밸리든 파주출판도시에서든 건축가의 현존만 부각될 뿐 그 분과 같은 부류의 대중이 의심하는 부분의 알 권리를 찾아주는 친절한 배려가 부재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건축가가 손대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기이한 풍토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수나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 사유의 시위를 하고 있는 이가 전무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는 그분에게 우리의 건축동네는 오로지 한 방향으로 만의 지시등만이 존재하며 반대급부가 부재한 그것이야말로 전문가 집단의 폭거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건축바깥에서 건축계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이의 시선에 우리는 모두 무척이나 불안한 동거자들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선 그를 향해 면박에 가까운 변론을 들이댔지만, 의식 한 켠에선 그 분의 주장이 연신 바람을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시대도, 나라의 운명이 오락가락 하던 위기의 시절에도 건축인 집단이 앞서기보다는 뒤로 쳐져서 떡고물만 챙기기 바빴지 않았느냐는 그의 주장은 섬뜩한 것이었기에 말입니다. 건축계는 지금도 내부 살림 걱정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무심한 것이 사실이고, 설계기업 혹은 건축사사무소가

존폐를 걱정해야하는 경기침체의 수렁 속에서 가쁜 숨소리를 내기에도 황망한 터인지라 그 분의 이유 있는 항명은 정상적인 논법으로 대응하기엔 그 결과가 너무나 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비록 입을 꼭 다물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운동권은 엄두도 못내었지만 건축인이란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 정의의 숨소리를 내고 있는 저 많은 음지의 건축인들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그것의 알림에 대한 소명 같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분의 철떡 같은 건축네트워크로서 나의 정보력의 신용등급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배면에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는 우리 다수의 건축인들을 단순히 업자 취급하지 않으려는 그 분의 의식 저류에 깔고 있는 건축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과 연민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읽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정황이긴 합니다.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건축의 내부사정을 도외시한 일 개인의 평론(貶論)이라고 일축할 수 있는 작은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그 분 또한 자신의 건축에 대한 무지 때문일 거라고 토를 달았지만, 이 같은 대중적 정서가 소위 문화판의 지식인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건축사회에 이로울 것이 없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술자리의 논쟁이 깊이가 있어봐야 얼마나 깊었겠습니까마는 그 일순의 냉랭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건축의 밖에서 건축의 문제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건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의 윤리적 기준을 들이대는 대중적 정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 건축사 분들께서도 한 번 짚은 가슴에 새겨주실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건축인보다도 치열하게 건축의 존재감에 대하여 스스로 묻고, 캐고, 가슴으로 불안해하는 우리의 대중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건축시대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막연한 미래에의 기대감으로 위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건축대중의 회복과 저들과의 온전한 대화법이 건축사회에 농익을 때쯤이면 우리의 건축문화도 한층 진일보해 있을 것이란 믿음으로 말이지요. ㉮